



# 데이터베이스에 변혁을 가져다 준 CD-RO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수단은 처음에는 정보 통신(온라인) 뿐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CD-ROM이란 손바닥만한, 마치 옛날의 도너츠판 레코드처럼 생긴 정보의 축적매체가 나와서 웬만한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렇게 작은 물건에 커다란 백과사전을 한꺼번에 몇일씩이나 담아버릴 정도로 축적용량이 방대해져서 전자출판계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방대한 종이 매체에 담긴 정보를 전자매체로 바꾸는 것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에서만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실용화되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출판이 산업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필자가 가장 보고싶은 것중에 하나인 [조선왕조실록의 국역판]이 CD-ROM으로 제작되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질을 구입하려고 문익해 보았는데 가격이 500~600만원씩이나 되어 그만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TV방송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되어서 흥미롭게 시청하고 있다.

어쨌든 CD-ROM을 끼워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일은 손쉬운 일이 되었다. 다만 보급가격이 일반 생활인에게 다소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생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원래 데이터베이스란게 그런거다.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항상 채산성이 맞지 않

게 되어있다.

얼마전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배 한사람을 만났다. 컴퓨터 정보통신이니 또는 데이터베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여길 만큼 필자 자신이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나우스DB97이라는 이름의 CD-ROM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법령이 3,300개, 법원판례 등인데 3가지 DB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 조세 백과, (2) 법률백과, (3) 계보관리 등으로 구분해서 조세통람을 구독하는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관리는 세무관련 공무원이나 세무사들의 전체명단이 있어서 사람이름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채산은 있습니까?”

“아직은 기존의 회원사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독자가 있으면 유료로 제공할까 합니다.”

“한질에 얼마를 받고 판매하고 계십니까?”

“25만원입니다.”

“그 많은 자료에 그정도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채

산이 맞지 않을 것 같네요. 내가 조선왕조실록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무려 500만원이나 달라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만..." 그리고는 말을 이어서 "말이 났으니 말이지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담아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유료이용하게 하는 것과 CD-ROM만 판매하는 경우와 어느 것이 경제성이 맞을까요?"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장장 1시간반의 토론이 있었고 서로가 배운 점이 많아서 서로가 감사해 하면서 뚜렷한 결론없이 헤어졌다. 필자는 CD-ROM DB가 온라인DB의 마켓을 대단히 많이 잠식하겠구나 싶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DB검색과 CD-ROM DB와의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 3, 4년전 어느 외국의 세미나에서인가?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환기시킨다. 전세계에서 최대의 온라인 DB검색 서비스기관인 KR-Dialog에는 600여종의 DB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NTIS, CAS, INSPEC...등은 대부분이 CD-ROM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가 별도로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따라서 이들이 온라인의 수요를 격감시켰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보검색 담당자들은 온라인DB 검색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CD-ROM이 나오니까 처음 얼마간은 모두 이쪽으로 몰려 들어서 온라인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CD-ROM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곳을 방문해서 얼마나 실용적이며 자주 사용하는가를 질문하였더니 "CD-ROM을 자주 구입하다가 보니 CD-ROM만을 관리하기 위한 서재가 따로 필요하더군요. 그리고 매번 CD-ROM 하나를 골라서 드라이브에 끼워서 가동시켜서 검색이 가능하게 될 상태까지 시간이 몇분씩 걸리는데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라고 대답한다. 전처럼 온라인 담당자가 CD-ROM까지 모두 담당할 수가 없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온라인 DB검색에 비해서 얼마나 더 편리하며 어느것

이 더 나은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일장일단이 있지요. 온라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검색은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다시 물었다. CD-ROM구입비로서 온라인 통신료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이라는 답을 했다. 이러한 답변이라면 온라인 DB는 회사나 공공기관용으로 알맞고 CD-ROM은 오히려 개인 용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히 온라인 DB검색 서비스와 CD-ROM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부류의 이용자 마켓임에 틀림없으나 온라인인 경우에는 [정보검색기법에 속달된 자]에 한해서 더 경제적이며 CD-ROM인 경우는 초보자에게도 시간적인 구매를 받지 않고 천천히 검색해보는 도구로서 효과가 있다. 용도면으로 본다면 상호보완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서로가 마켓에서 경쟁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온라인 DB산업과 전자출판산업은 마치 붓과 볼펜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정보매체의 기술이 발전하여 대용량의 [광디스크]장치도 개발이 되어 멀티미디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온라인 DB로 서비스하는 데이터뱅크도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발전하여 점차로 [디지털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도서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종이책자 대신에 CD-ROM이 보급되는 시대가 닥아오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을 구걸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일대 시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계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정보가 불투명한데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이는 정보화가 제대로 아니 고루고루 되지 않고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화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기구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숨김없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서비스에 임하도록 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용하는 일을 습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명대학교 강사 유경희)